

제1강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시절

예수님에 탄생과 유년시절에 대해서 마르코 복음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마태오 복음은 1장에서 루카 복음은 1, 26~38(탄생예고), 2, 1~7유년시절에 대해서 마태오 복음은 2, 1~ 23 루카 복음에서는 2, 40~52까지 소개되어 있다.

1. 예수님의 탄생 예고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오 복음 1~2장을 통해서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락(1장 : 족보)을 통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하나의 족보가 복음을 시작하고 있다. 족보는 신분증의 구실을 하며, 한 개인을 사회적, 역사적 구조 속으로 삽입시킨다. 예수의 족보에서 마태오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예수는 확고하게 이스라엘에서 유래한 존재이며,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뻗어나온 자손임을 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 하느님의 축복을 약속받은(창세 12,3) 조상

다윗 :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자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문에서 예수는 ‘인간적 출산에 따라서는 다윗의 가문’ (로마1,3)으로 제시

족보의 구성

예수의 조상이 성서 역사의 주요 단계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1) 마태오 1장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단계 시대 구분은 족장들의 시대(2~6절), 왕조사부터 유배 시기(6~11절), 유배 이후 시대(12~16절) 등이다. 예수의 조상으로 지칭되는 인물들은 모두 왕족이다. 이스라엘에서 왕조정치가 행해졌다는 사실로부터 예수의 족보는 메시아의 등장을 예비하기에 적합한 계보가 된다.

2) 곱셈표에 관하여 : 42라는 숫자 → 17절에 복음서 저자는 ‘3 × 14세대’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서 시대 구분은 ‘일곱’세대라는 완전한 숫자의 2배를 내포하고 있다. 7이라는 숫자는 고대 유대인 저자들이 세상의 역사를 구분하면서 즐겨 사용하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 내의 단계들을 ‘셈하는’ 것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저자의 계획에 따라 조직화하려는 사고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하느님께서 세상의 역사

를 그리스도의 도래를 향하여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뜻한다.

※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덕을 입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다. 조상을 인위적으로 계산하여 구조화한 의도는 ‘그리스도의 도래’에 이르는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앙을 고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2장 : 베들레헴 탄생, 이집트 체류, 나자렛 정착)을 통해 ‘예수는 어디로 부터 왔는가?’에 대한 질문

1) 동방박사(점성가)들의 방문 이야기(마태 2,1~12)

1-2절 :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의 왕’의 도래를 알리는 별 하나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왕에게 경배드리러 가기로 결정했다.

3-6절 : 헤로데는 산헤드린(대제관들과 율사들)을 소집한다. 산헤드린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말씀을 연구하고 성서를 해석하는 유다이즘의 대표적인 회의 기관이었다.

7-8절 : 헤로데는 그 대항자의 생명을 헤칠 생각으로 권위자들이 해석한 예언 말씀을 심중에 품는다.

9-11절 : 성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정하게 된 동방박사들은 다시금 별을 발견한다. 별이 그들을 메시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12절 : 헤로데의 대학살 계획은 하느님의 개입으로 일단 좌초된다.

2) 이집트로 피신함(2,13~15)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집트’는 억압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이집트는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한 해방 여정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는 15ㄴ절에 드러난 호세아 예언서 인용구(호세11,1)가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 갓가지 시련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루카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예고

1) 천사의 발현(1,26~27) : 하느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 작은 촌락 나자렛의 한 소녀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였다. 이곳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중요한 곳이 되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구원활동이 전혀 새로운 사건임을 가리킨다.

2) 천사의 인사, 마리아의 두려움과 천사의 위로(1,28~30) : ‘기뻐하여라’라는 말은 ‘평화!’와 더불어 당시 그리스인들의 인사말이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는 말은 마리아가 자기의 인간적 공로나 자질이 없는 상황에서 무상으로 이미 메시아의 어머니로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뜻한다. 그러기에 즈카리아에게서 한 것처럼(루카1,13) 마리아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3)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마리아의 이의 제기(1,31~34) : 천사는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두 단계에 걸쳐 제시했다. 첫째 단계는 네 가지 주제,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는 예수님’, ‘야곱 가문의 영원한 임금’, ‘끝이 없는 왕국’으로 구성되고, 둘째 단계는 마리아의 영적 체험과 아기 예수님의 거룩함과 하느님 아들 신분에 대한 것이다.

4) 탄생 예고(1,35) :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은 삼위일체의 성령이라기보다 하느님의 창조적 힘(루카1,17)을 뜻한다. 그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가 병행되는 것으로 입증된다.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이 마리아를 구름처럼 덮어 감쌌다는 진술은 그녀 위에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하느님이 그녀 위에 임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느님은 당신의 강력한 현존의 힘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여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거룩하신 하느님께 속한 아들이시라는데 기인한다. 예수께서는 하느님께만 의존하고 신뢰하는 아들이시다.

5) 표징 제시(1,36~37) :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은둔해 있는 상황에서 증언하는 구실을 했다.

cf) 예수님과 요한 세례자의 친척관계?

이 친척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촌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동안 요한 세례자가 그분의 친척이었다고 암시조차 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요한복음(1,29~34)에서는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뵈는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여겨야 한다.

6) 마리아의 승복(1,38) : 마리아는 신앙의 눈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동정 잉태라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결단을 내리고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여종의 순종을 필요로 하셨던 것이다. 그녀가 하느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데는 하느님의 은총만이 아니라 이 은총에 대한 그녀의 믿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리아는 믿음에 힘입어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마리아의 인간적 모성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녀의 신앙인 신분이라는 두 역할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2. 예수님의 탄생

1) 호구조사(2,1~5)

‘그 무렵’은 호구조사가 요한 세례자의 출생한 후에 실시되었음을 가리킨다. 이는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인구조사를 명한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체사르(Julius Caesar)의 조카의 아들 옥타비아누스(기원전 63년 9월 23일~기원후 14년)이다.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도 갈릴래아의 나자렛을 떠나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1사무 20,6. 28~29)으로 올라갔다. 나자렛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는 약 145킬로미터이다. 베들레헴은 해발 약 770미터, 나자렛은 해발 약 550미터이기 때문에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했다.

루카 복음사가는 요셉이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고 했지만, 마태오 복음사가는 요셉이 베들레헴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마태 2,11) 예수님의 탄생 후 거기에서 처음으로 나자렛으로 갔다고 한다(마태 2,22~23). 이렇게 위의 두 복음사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어디에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는다. 누구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정보인지 밝히기 어렵다. 마태오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루카가 제시한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은 부정확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루카의 신학적 논지에 기인한 것 같다. 이 논지는 하느님이 인구조사를 명한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으로 가게하고 예수님을 이 도시에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루카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 황제와 시리아와 유다의 통치자 퀴리니우스의 정책(전 로마 제국이 인구조사)에 연결시킴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다.

2) 예수님의 탄생, 포대기와 구유(2,6~7)

‘첫아들’ - 이 아들이 주님의 차지라는 것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탈출 13,2; 민수 3,12). 율법에 첫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민수 18,15~16, 신명 21, 15~17)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 다른 아들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첫아들이요 유일한 아들이시다.

포대기는 가난을 뜻하기보다 예수 메시아께서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지혜서 7장 3~5절을 보라, 솔로몬도 같은 처지에서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인생을 시작했고, 이는 그의 왕적인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대기에 싸인 예수님도 인간적 품위와 왕적 품위를 잃지 않으셨다.

루카 복음사가는 왜 여관에 자리가 없었는지,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구유 옆에 가축들이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루카 복음과 달리 마태오 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집 안에 태어나셨다(마태 2,11)고 서술되어 있다. 마태오 복음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면 여관에 자리가 없었다는 루카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그의

신학적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 기록은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이 나그네나 이방인처럼 숙소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구유에 눕어지시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그것은 주님이신 구세주께서 당신 땅에서 나그네처럼 왜 여관에 머무시는지에 대한 탄식과 위배된다.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하룻밤 묵고자 들어선 나그네처럼 되셨습니까?(예레 14,8) 이 진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의 때에 하느님이 무관심하면서 보호의 손길을 펴지 않으시는 것을 한탄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님과 구세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구유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보호와 보살핌 속에 태어나셨다.

목동들은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루카 2,20). 이제 하느님의 백성들은 구유 안의 예수님 탄생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보호를 승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여관에 자리가 없었다는 말이 주인이 몰인정했다거나 예수님의 양친과 예수께서 가난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기보다 오히려 예수께서 당신 백성들 가운데서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으셨음을 뜻한다. 그것은 그분이 ‘포대기’에 싸였다는 말(루카 2,7)로 강조되었다.

3) 천사의 선포

천사가 밤에 발현하자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었다. 영광은 하느님의 위엄이 가시적으로 현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더욱 분명해졌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고...’(루카 1,78ㄴ~79ㄱ)라는 즈카리아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알린다. 밤중에 하느님의 현존이 빛난 것은 목자들에게 인상적 체험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기쁜 소식으로 없어진다.

‘오늘’은 예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루카 1,31-35)이 실현되어 메시아의 구원시대가 현재 도래했음을 가리킨다. 그것은 세상종말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도착했음을 뜻한다.

‘구원자(구세주)’라는 칭호는 로마 제국에 정치적 평화를 가져온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적용되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황제의 치세 때에 구유에 태어난 예수께서 황제와는 대조적으로 참된 주님과 구세주이심을 암시한 것 같다. 그와는 달리 아기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심으로써 사람들을 하느님과 일치시키는 평화를 베푸는 구원자(구세주)이다.

‘그리스도(메시아)’라는 칭호의 기원은 시편 2장 2절(“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메시아)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에 발견된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재건할 이상적인 다윗 가문의 왕적인 메시아이다. 예언서(미가 5,2)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또 예수 메시아께서는 사람들 가

운데 현존하시면서 하느님의 구원을 베푸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칭호는 부활하신 예수께 적용된 것이다.

‘하늘의 군대’하늘에서 하느님의 현존 속에 사는 영적 존재들이다. ‘하늘의 군대’의 찬양은 하느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위업을 천상과 지상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늘에서의 천사들이 구세주의 탄생을 통해 당신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드러내신 하느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 탄생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목자들로부터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확대되었다.(루카 2,11~14)

3. 예수님의 유년시절

예수님의 유년시절에 관해서는 루카복음에서만 나온다.

먼저, 루카 2,40은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한 기록(루카 2,1-39)의 결론이다. 아기 예수님이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 졌다는 것은 어린 사무엘이 주님의 현존 속에 성장한 것(1 사무 2,21)의 진술을 연상하게 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간파하시는 데 정진하셨음을 뜻한다.

루카 2,41~52까지의 내용은 예수께서 성인이 되시기 전 가족관의 삶에서 유래한 일화이다.

입문(41~45)

41절 : 구약성경에서는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해방절, 오순절과 장막축제 때 하느님께 바칠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한다고 규정했다.(탈출 23,14~17; 34,23~24 신명 16,16)

마리아처럼 여자가 해방절을 위해 순례를 가는 경우는 성전에 대한 대단한 신심의 표현이다.

42~43절 :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 소년은 13세부터 율법규정에 따라 성전 순례를 포함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열 두 살의 예수의 경우는 이 순례를 갈 의무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아마 부모님의 신심 때문에 소년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다.

본론(46~50)

46절 :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사흘 째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경청하면서 그들과 토론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기보다 열성적으로 그들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취하셨음을 뜻한다.

47절 : 예수님이 율법교사들 가르침의 핵심을 통찰하여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는

데, 그것은 그분의 지혜로 가득 찼음을 보여 준다.

48절 : 어머니는 아들을 찾은 기쁨보다 마음고생을 한 것에 더 집착했다. 이렇게 칼이 마리아의 영혼을 꿰뚫을 것이라는 시므온의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49절 :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관계를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고 부모와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천상의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가 지상의 부모와 관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 대해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라고 실망하는 어투로 물으셨다.

하느님과 예수님의 부자관계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 알려 준 계시이고(루카1,35) 예수님이 열두 살 때 그분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으며(루카 2,49), 그분이 약 서른 살이 되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천상의 소리(‘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드러난다. 본디 위의 부자관계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부활 신앙의 빛으로 계시된 것이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소년시절의 일화와 세례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설명하는 계기로 삼았다.

예수님께서 당신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루카 2,49ㄴ) 말은 예수님이 당신께 부과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자각하셨음을 가리킨다. 이 뜻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자 하느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사람의 거절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를 능가하여 당신의 계획을 관철하신다.

결론(2,51~52)

51절 : 예수님의 하느님 아들 신분은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갈릴래아 주민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이상으로는 알지 못했다(루카 4,22)

주님의 여종으로서 하느님께 순종한 마리아는 아드님의 신비를 알아들을 수 없음에도 이 신비를 배척하지 않고 묵상하는 자세를 가졌다. 예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느님 아들의 신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지향한다.(사도 1,14)

52절 : 루카 복음사가는 열두 살의 예수님이 이미 하느님께 대한 통찰력이 훨씬 증대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며, 하느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 서술했다.

예수께서 몸과 마음으로 또한 하느님과 대인관계에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약 17년 후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자답게 완전히 성숙한 분으로 대중 앞에 나타나신다. 그 사이에 요셉은 이 세상을 떠난 것 같다.